

# 서울시 권역별 공공갈등 구조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 in Seoul

김 강 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교수)

### *Abstract*

Gangmin Kim

Given that the frequency of conflicts occurring year after year across the city is decreasing,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can not be assessed simply by the frequency of occurrence, the number of conflict days and other conflict environ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number of days of conflict in Seoul is about 450, which is not high compared to the nationwide period, but cannot be concluded as low. However,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e number of days of conflict is gradually decreasing year by year.

Given the overall conflict environment as an objective number, it can be said that conflict is easing. For this positive aspect of conflict management to continue, a region-specific discriminatory approach is required.

Keywords: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seoul, period, frequency

## I.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현재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주변으로 성장 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전철노선이 충남권과 강원도권까지 이어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대 되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 인구는 20만명이었지만 현재는 약 1,00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어 있으며 주변 수도권지역의 약 1,200만명과 합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차지하며 수도권인구가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감안하면(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시에는 약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최근 인구 1000만이 무너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까지 약 1000만 이상(서울시 통계청, 2019)을 유지했기 때문에 인구의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14세이하의 인구가 낮아지는 변화들이 도시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와 함께한 도시성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공익을 위한 욕구충족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제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분쟁의 형태로 나타나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집회 및 시위의 형태로 분출되게 된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갈등복합화를 촉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급화 요구되고 있다(나태준, 2005). 하지만 이러한 성장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양적위주의 급성장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갈등의 요소들이 정책추진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호 순환되면서 도시기반 이용자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다(한영주, 2007).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소통을 통한 노력과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발생한 갈등사례에만 해결이 치중되었으며 서울시 전체의 근본적인 갈등예방이나 완화를 위한 대응은 미흡하였다. 특히 사례마다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 미시적인 접근은 가능하나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한 거시적인 연구로는 거의 전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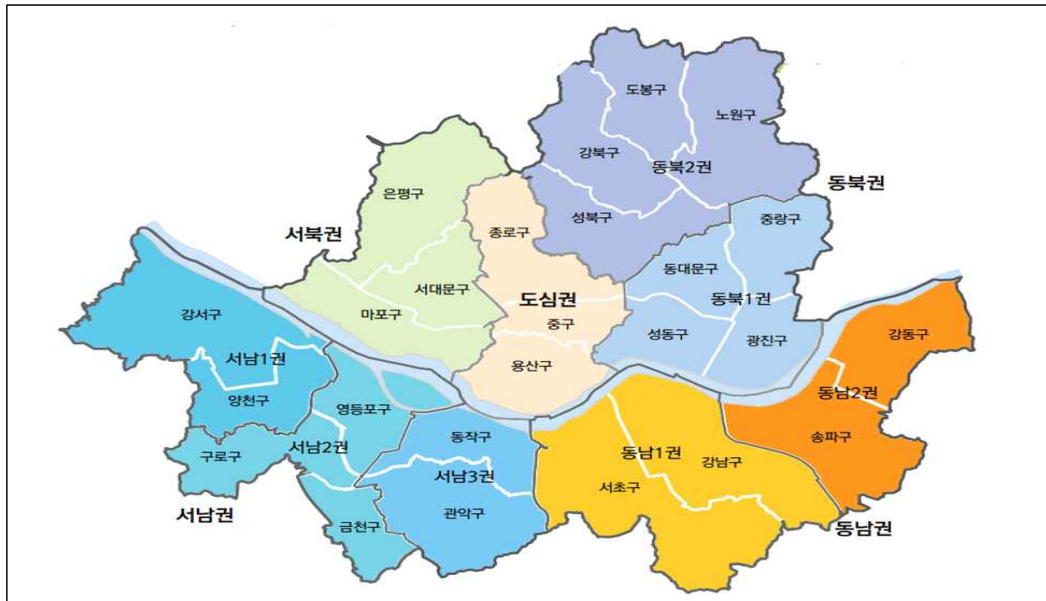
서울시 차원의 근본적인 공공갈등 대응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지역별 구조과악과 특징을 통해 서울시 갈등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베이스자료를 기반으로 갈등의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갈등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서울 세분화하여 갈등의 시기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간적 범위로는 1990년부터 20018년에 발생한 갈등사례<sup>1)</sup>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도심권역별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으로 5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출처: 서울시 통계청

<그림 1> 서울권역별 지역현황

갈등조사 기준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DB<sup>2)</sup>의 분석기준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갈등 시기는 갈등의 발생시기와 해결 및 종결 시기를 조사하여 갈등지속기간을 중심

1)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DB를 기본 자료 사용

2)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DB에 포함하는 공공갈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첫째, 공공의 자유로운 접근장소에서 100명이상 1회 시위집회를 한 경우  
 둘째, 연인원 500명이상 집단행동을 한 경우  
 셋째,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이상 3가지의 기준이 충족해야 공공갈등으로 간주함

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갈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갈등유형, 갈등종류, 갈등성격, 갈등해결방법, 시민단체 참여 여부, 참여시민단체수, 시계열분석을 조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갈등현황 분석기준

갈등기준	세부기준	내용	
갈등 시기	날짜	발생 및 종결 시기	지속기간
갈등특성	갈등유형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갈등종류	민/민, 관/민, 관/관	
	갈등성격	이익/이익, 이익/가치, 가치/가치	
	최종갈등해결방법	협상, 조정, 중재,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판결, 진압, 자진 철회, 소멸, 입법, 진행 중	
	시민단체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참여시민단체수	참여시민단체수 기록	
	시계열분석	발생년도, 발생월, 대통령	

내용적 범위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갈등DB를 시기와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갈등현황기준을 기본으로 시기별, 지역별로 조사하여 각각의 현황을 통해 갈등 특색을 살펴보고 갈등의 대응방안을 시기를 고려한 지역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적 대응방안은 다양한 유형 및 성격 등을 나타내고 있는 갈등특성을 해당지역별로 차별화 전문화하여 마련한 후 지역자치단체간의 협력적 시스템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갈등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전술한바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공공갈등DB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현황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기본적 갈등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비교통계분석을 통해 상이한 사항에 대한 원인 및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양상이나 흐름을 통한 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기법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지역을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으로 크게 구분하고 권역별 해당구를 중심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권역별로 빈도, 교차,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특징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 Ⅲ. 서울 갈등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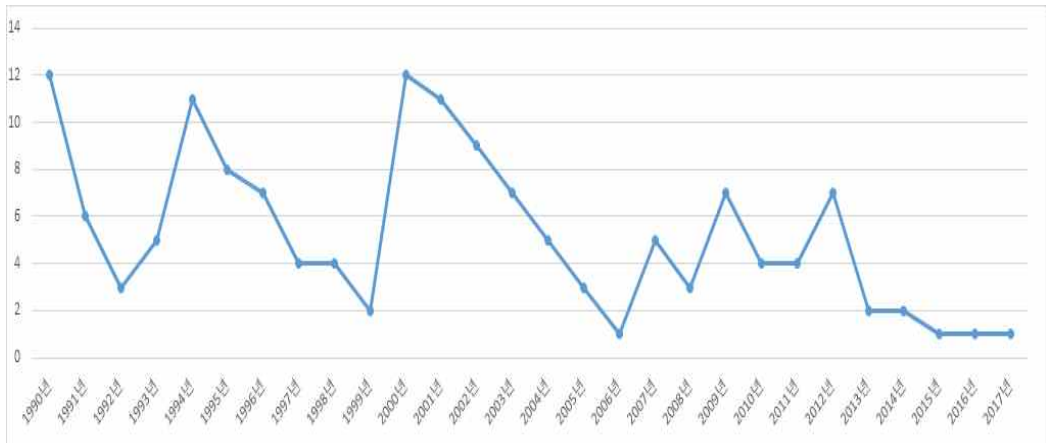
#### 1. 시계열 분석

##### 1) 연도별 분석

199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한 갈등빈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의 공공갈등은 약 2000년도부터 중반까지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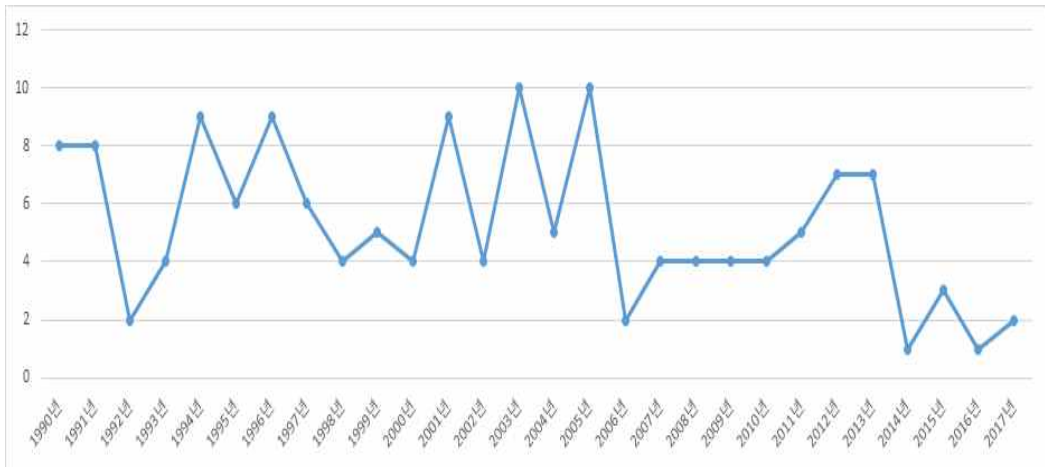
갈등빈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약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1994년부터 1995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공공갈등의 빈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 공공갈등의 연도별 분석 결과이다.



<그림 2> 연도별 공공갈등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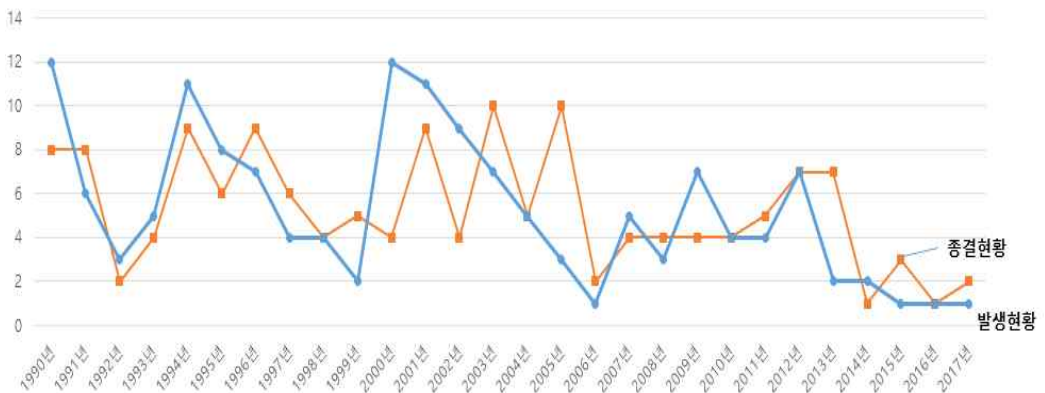
다음은 연도별 공공갈등의 종결현황을 살펴보았다. 공공갈등의 종결은 일정부분 파동은 있지만 연도별로 종결빈도가 약 2년주기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기간은 약 2003년과 200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1994년과 1996년도가 다음으로 높은 종결 빈도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연도별 갈등종결현황

아래 그림은 연도별 발생현황과 종결현황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상호비교해보면 규칙적인 파동 변화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종결하는 구역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갈등이 발생한 즉시 종결되어 바로 갈등을 해결되는 긍정적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사업이 종결되면서 함께 갈등도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연도별 갈등발생 및 종결 비교현황

## 2) 월별 분석

다음은 월별로 공공갈등이 발생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공공갈등이 가장 높게 발생한 월은

3월로 조사되었으며, 5월에서 6월은 기간에는 공공갈등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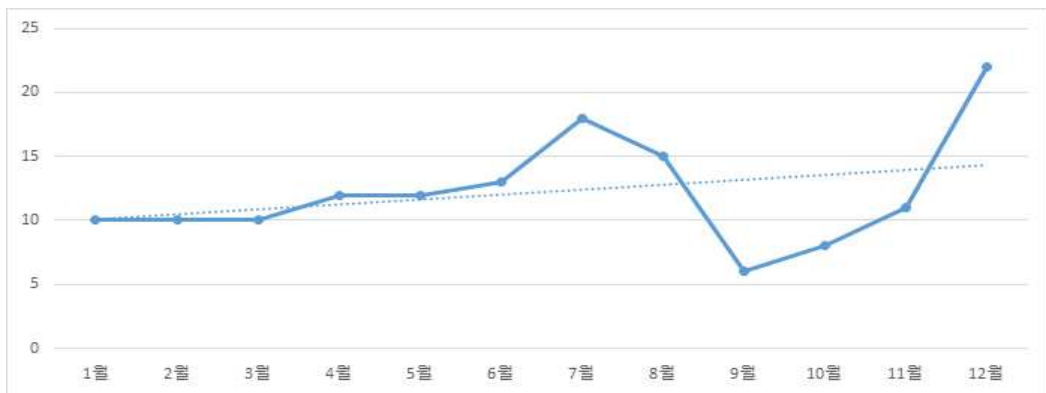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12월로 갈수록 공공갈등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시위 및 집회의 경우 외부에 이슈화 시키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12월의 경우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처럼 환경요인으로 인해 관심을 받기 어려워 시위 및 집회가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월에 급상승하는 구조를 보았을 때 분석결과와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5> 월별 갈등발생 현황

다음은 월별 종결현황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월별로 가장 종결빈도가 높은 기간은 11월에서 12월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6월에서 7월의 종결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추측해보면 정책이나 사업이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종결되는 구조로 가능할수 있으며 이에따라 정책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크게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2월에 사업이나 정책의 종결빈도가 높아지면서 갈등종결빈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월별 갈등종결 현황

월별 종결 및 발생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소 상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갈등발생은 점차 줄어들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갈등종결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갈등종결은 사업이나 정책이 종결되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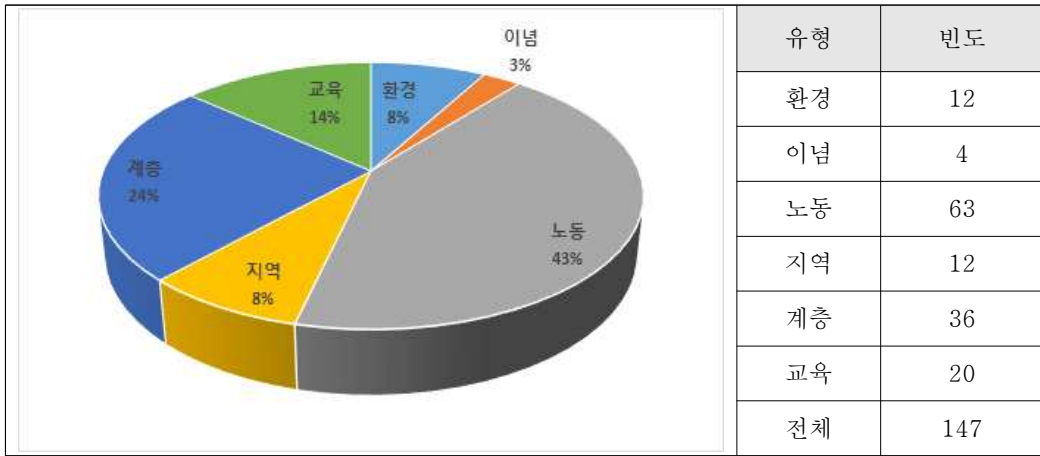
<그림 7> 월별 갈등발생 및 종결 비교현황

## 2. 구조적 분석

### 1) 공공갈등의 유형

서울의 공공갈등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동갈등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계층갈등이 24%, 교육이 14%, 지역과 환경이 각각8%, 이념이 3%의 비율을 보였다. 전국적의 공공갈등 양상의 경우 노동갈등이 26%, 지역, 계층이 약20%내외, 환경갈등 약15%, 교육이 약11%, 이념이 약 6%(가상준외, 2015)와 비교하면 노동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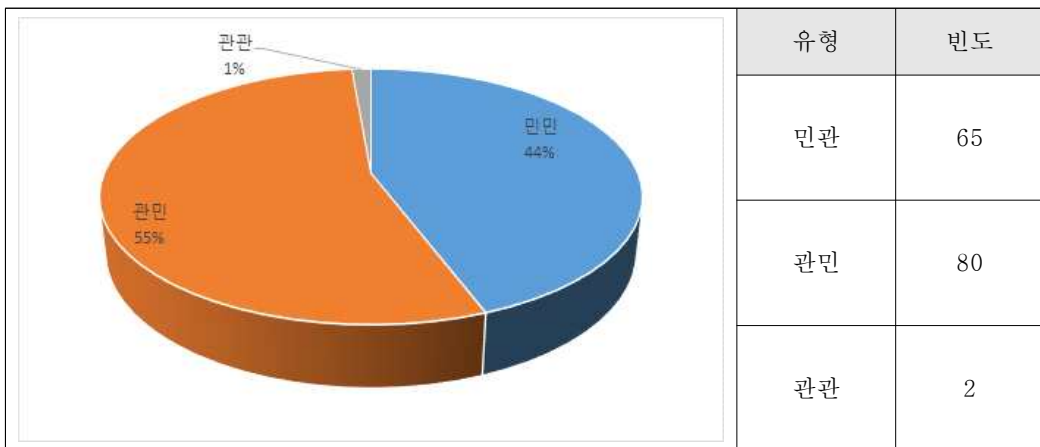




<그림 8> 공공갈등 유형현황

2) 갈등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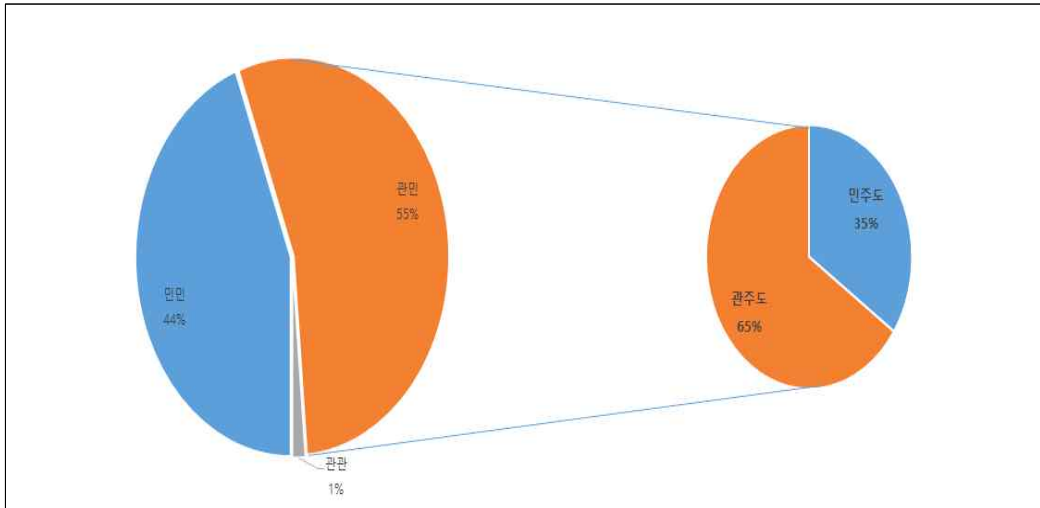
갈등종류는 정부대 민간갈등인 관민갈등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대 민간갈등인 민민갈등이 44%, 정부대 정부갈등이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민갈등이 높은 이유는 노사갈등이 높기 때문에 민민갈등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의 경우 인접 자치단체 구와 구간의 갈등이나 시와 구간의 갈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공공갈등 종료현황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관민갈등을 재구분하여 정부가 주도리한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관주도’와 민이 주도리한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민주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관주도

가 65%로 높았으며, 민주도가 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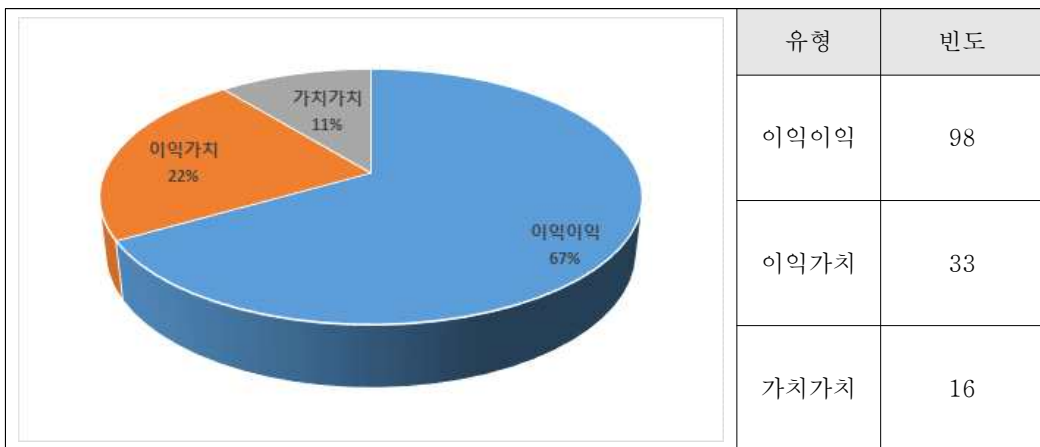


<그림 10> 공공갈등 정책주도 발생현황

### 3) 갈등성격

서울시 갈등의 성격은 이익대 이익갈등, 이익대 가치갈등, 가치대 가치갈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익대 이익갈등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익대 가치갈등이 22%, 가치대 가치갈등이 11%로 나타났다.



<그림 11> 공공갈등 성격현황

서울지역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익/가치의 비중이 증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선호시설의 입지 및 기존시설의 규모 확대 등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공유되면서 정당성확보를 위해 환경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추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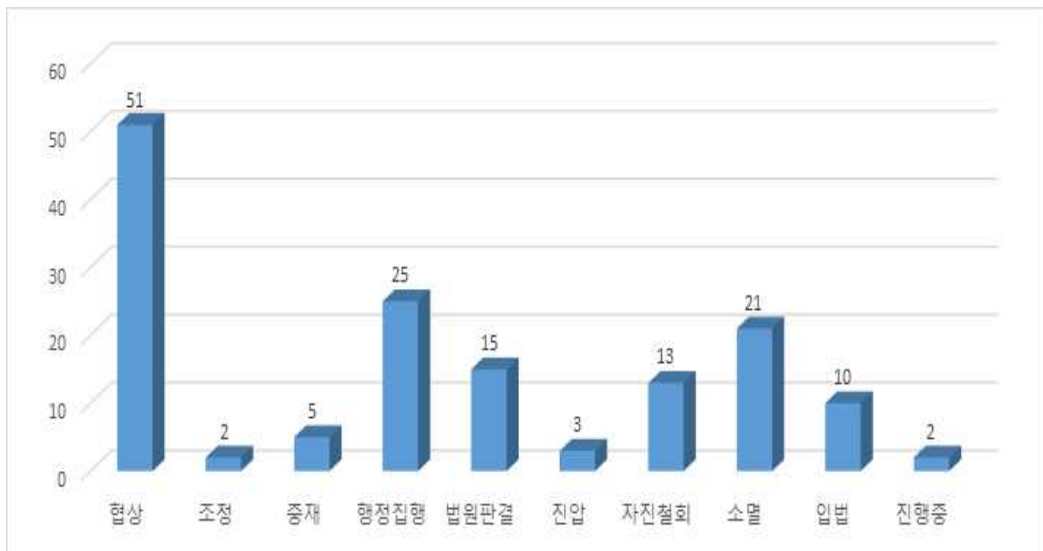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추후 갈등해결을 위한 쟁점과약의 명확성과 같은 해결과정의 문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갈등종결분석

#### 1) 갈등종결현황

다음은 서울시 갈등종결형태를 살펴보았다. 협상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노사갈등의 영향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노사갈등의 경우 어떤 과정이든 당사자간 협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사갈등을 제외하면 협상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는 행정집행, 소멸, 법원판결, 자진철회, 입법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집행, 법원판결, 입법, 진압 등 일방적으로 종결되는 현황을 종합하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협상, 조정, 중재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갈등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소멸의 경우도 다른 종결형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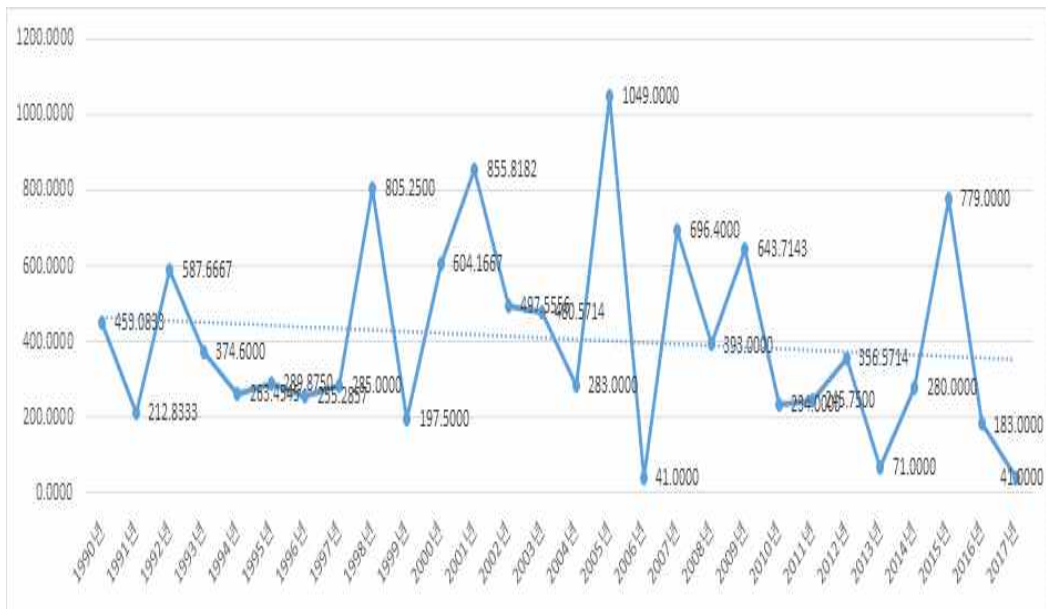
<그림 12> 공공갈등 종결현황

2) 갈등지속일수

갈등의 종결에 대한 평가 관점으로는 갈등종결형태 뿐 아니라 갈등의 빈도, 갈등의 지속일수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공공갈등의 지속성은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서울의 평균지속일수는 약 452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갈등지속일수가 상대적으로 평균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약 850일 정도의 지속기간으로 높아지면서, 2005년에 약1049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약 696일, 2015년도 부근에 약779일로 지속기간이 수치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공공갈등 연도별 지속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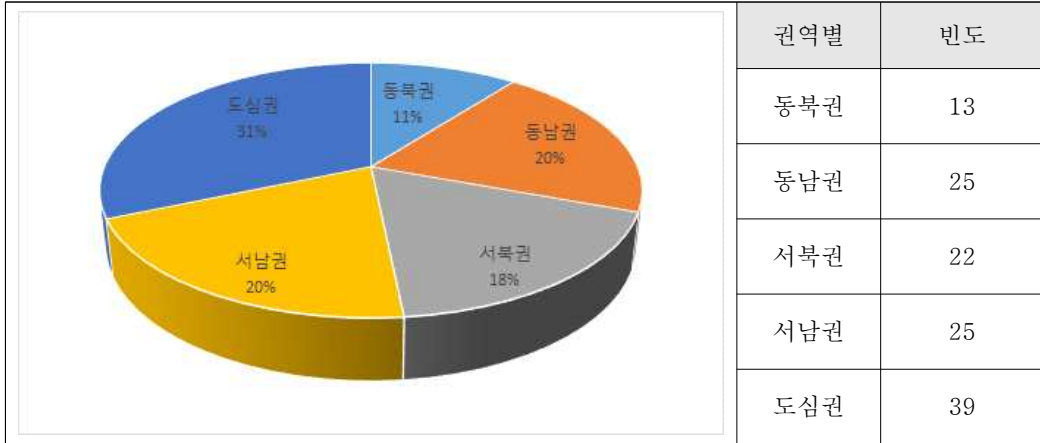
IV. 서울시 지역별 갈등분석결과

1. 갈등발생 구조

1) 권역별 공공갈등발생 현황

서울시 지역별 갈등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로 해당구별 공공갈등발생현황을

조사하였다. 권역은 전술한바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도심권이 31%로 가장 높은 갈등발생비율을 보였으며, 서남권이 20%, 동남권이 20%, 서북권이 18%, 동북권이 11%의 비율순서를 나타냈다.



<그림 14> 권역별 공공갈등 발생 현황

2) 세부지역별 공공갈등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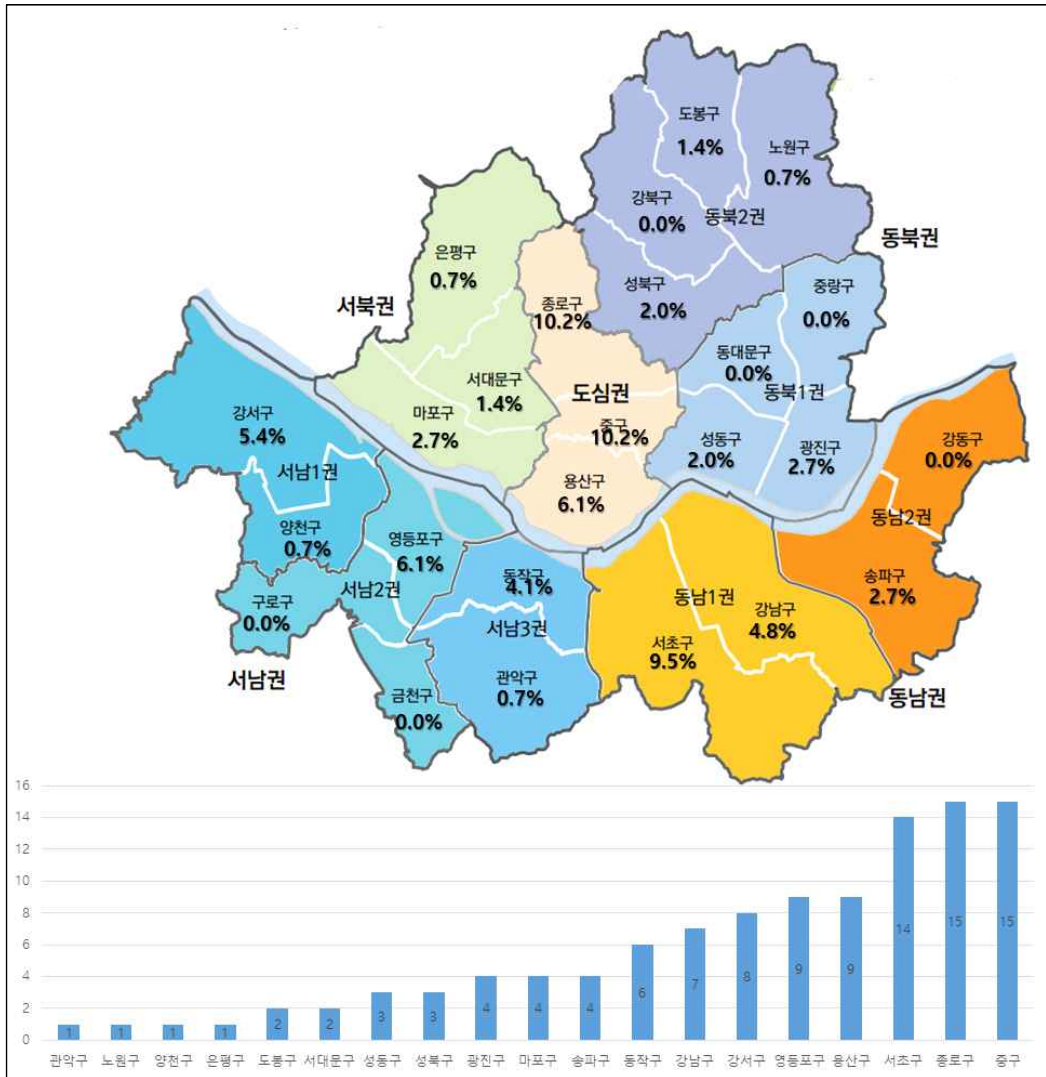
공공갈등의 빈도로 보면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종로구, 중구, 서초구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높았으며,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 동작구, 강남구가 중간빈도를 차지하였다.

종로구와 중구는 약10%의 비율을 각각 나타냈으며, 서초구 9.5%, 용산구, 영등포구 6.1%, 강서구 5.4%, 강남구 4.8%, 동작구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종로구, 중구는 도심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포함되는 용산구도 6.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동북권에서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3개 지역이었으며, 동남권에서는 강동구 1개지역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북권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없었으며, 서남권에서는 구로구, 금천구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도심권에서는 모두 갈등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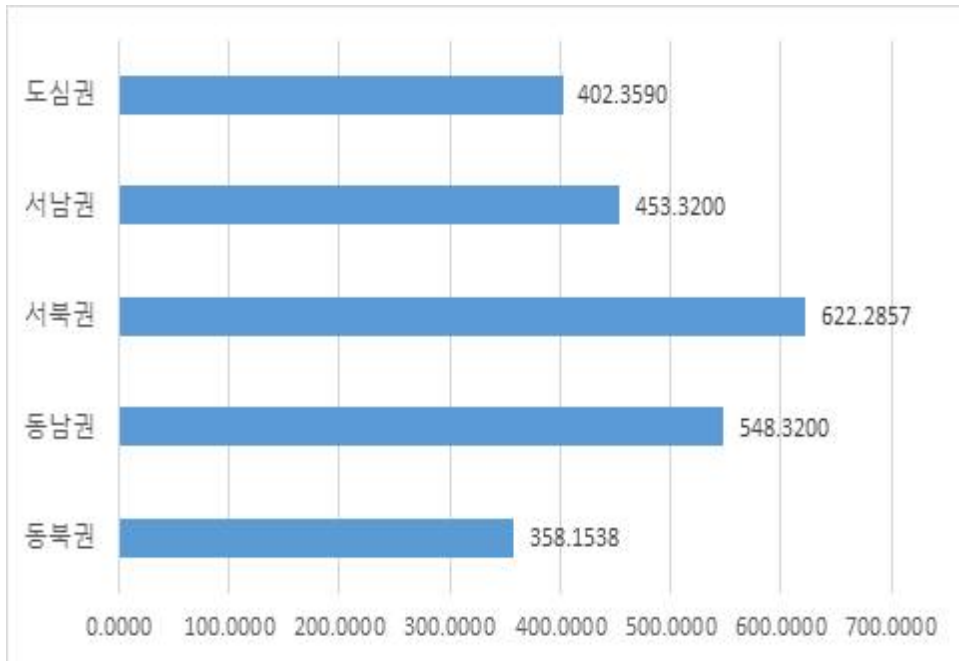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구별 공공갈등 발생 현황

## 2. 지속기간별 구조

### 1) 권역별 갈등지속 기간

갈등지속기간이 가장 긴 권역은 서북권으로 평균지속일수가 약 622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남권이 약 548일 소요되었으며, 서남권이 약 453일, 도심권이 약 402일로 조사되었다. 가장 짧은 지속일수를 보인 권역은 동북권으로 약 358일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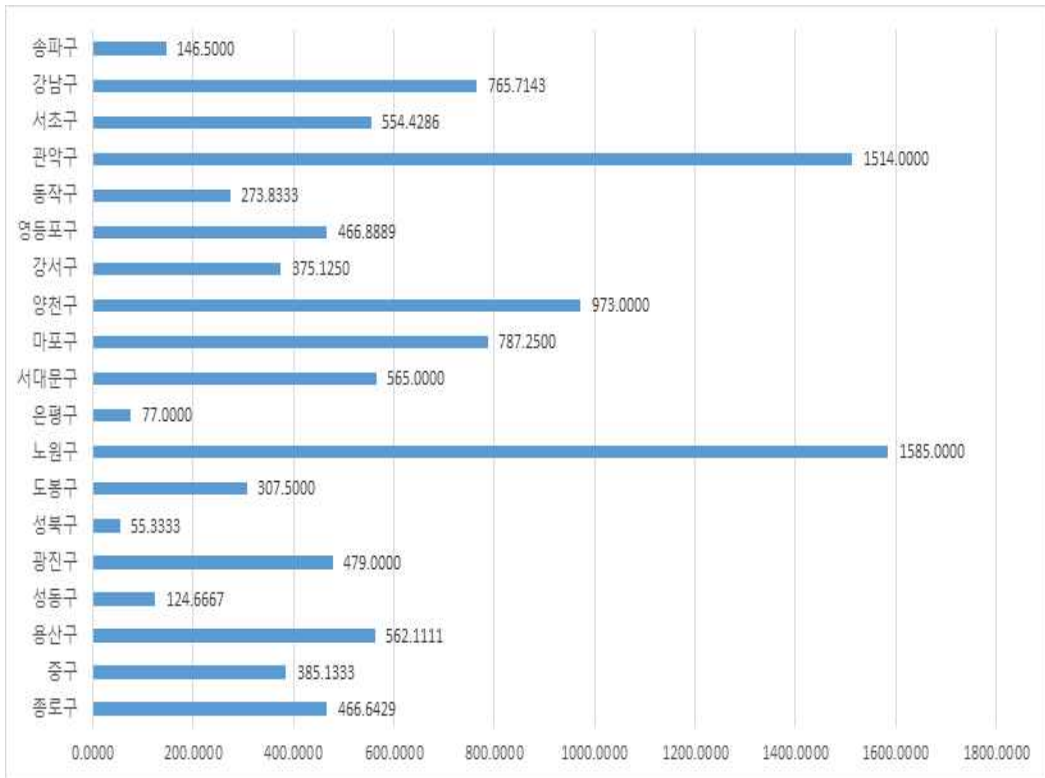
<그림 16> 권역별 갈등지속기간

## 2) 세부지역별 공공갈등지속기간

세부지역별로 공공갈등지속일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노원구가 평균지속일수 약 1585일로 나타났으며, 비슷하게 관악구도 약 1514일 가장 높은 지속일수를 나타냈다. 노원구와 관악구의 경우 갈등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해당지속일 수에 대한 의미를 노원구지역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크게 양천구가 약 973일로 나타나지만 해당지역도 갈등발생빈도가 낮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강남구와 마포구의 경우 갈등의 빈도도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지속일수도 강남구의 경우 약 765일, 마포구는 약 787일의 지속일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낮은 지속일수를 보이는 지역은 성북구로 약 55일로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은평구로 약 77일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지역도 낮은 빈도로 큰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음 낮은 지속일수는 보이는 지역은 성동구 약 124일, 동작구 약 273일, 강서구 약 375일, 중구 약 385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서울시 구별 갈등지속기간

### 3) 권역별 공공갈등유형 분포도

다음은 권역별로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유형별 권역비율적으로는 환경갈등의 경우 서북권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갈등도 서북권이 14.3%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갈등은 서남권이 60.0%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갈등은 동남권 16.0%, 동북권 15.4%, 서북권 14.3%, 서남권 8.0%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가장 비율분포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계층갈등은 동남권이 36.0%로 높았으며, 교육갈등은 동북권이 46.2%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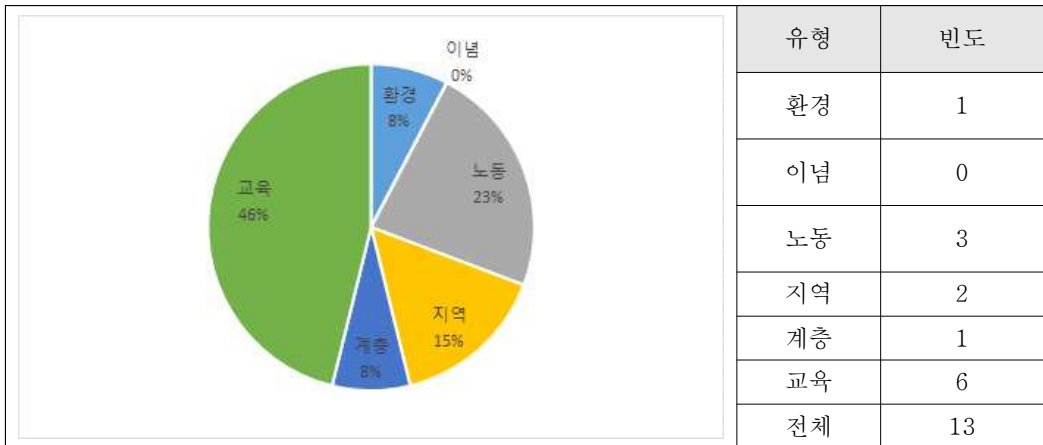


<표 2> 권역별 갈등유형현황

권역 \ 유형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동북권	빈도	1	0	3	2	1	6
	%	7.7%	0.0%	23.1%	15.4%	7.7%	46.2%
동남권	빈도	2	0	7	4	9	3
	%	8.0%	0.0%	28.0%	16.0%	36.0%	12.0%
서북권	빈도	2	1	1	1	0	2
	%	28.6%	14.3%	14.3%	14.3%	0.0%	28.6%
서남권	빈도	2	1	15	2	3	2
	%	8.0%	4.0%	60.0%	8.0%	12.0%	8.0%
도심권	빈도	3	2	18	1	11	4
	%	7.7%	5.1%	46.2%	2.6%	28.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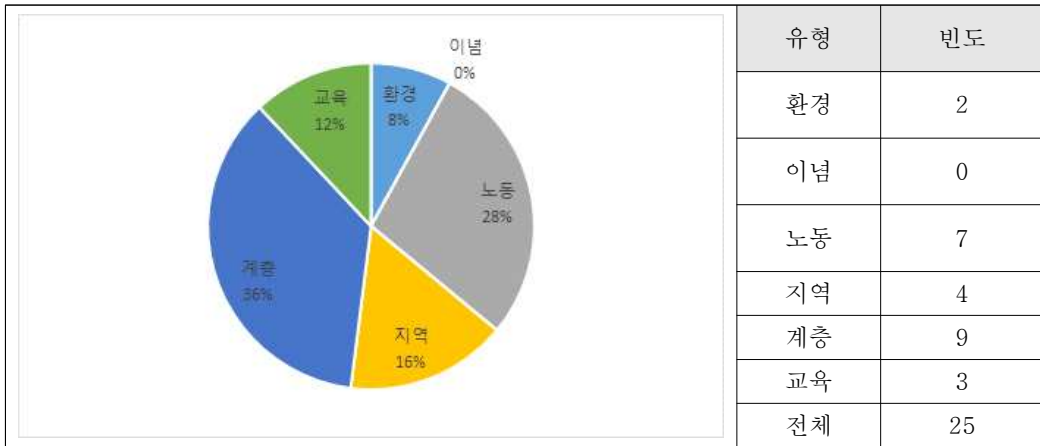
Chi-square=33.733(df=20), p<0.05(0.028)

동북권의 경우 교육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노동, 지역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의 특성상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교육갈등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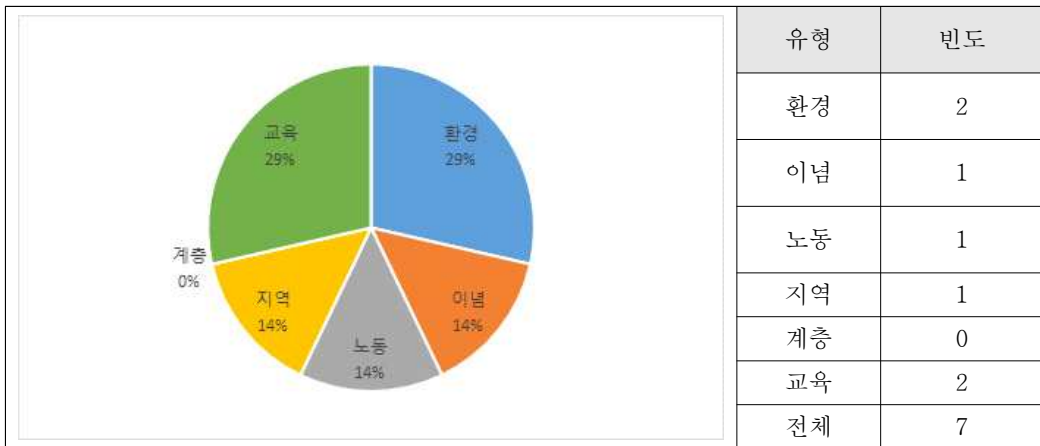
<그림 17> 동북권 갈등유형 현황

동남권의 경우 계층갈등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갈등이 28%로 나타났으며, 지역 16%, 교육이 12%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은 강남지역으로 높은 지가 및 주거지역으로 계층갈등의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동남권 갈등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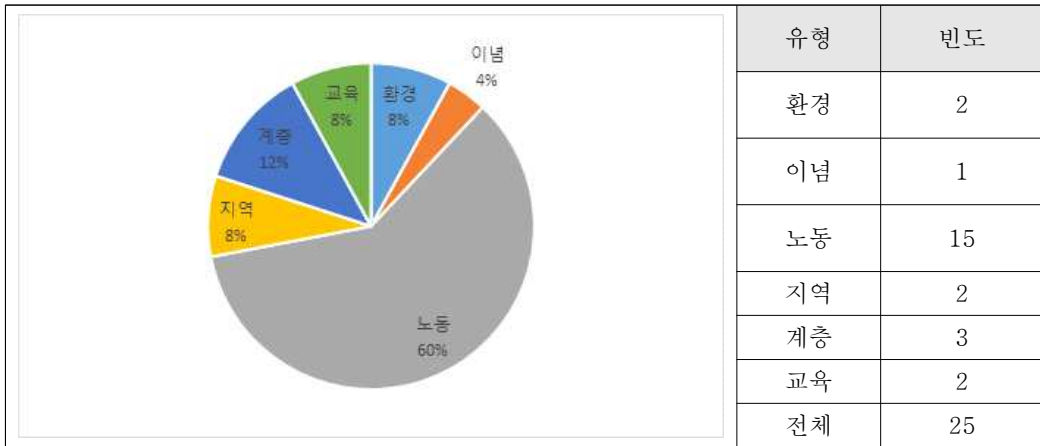
서북권은 교육 및 환경갈등이 각각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역, 이념, 노동이 모두 14%로 골고루 갈등비율이 분포되어 있었다. 서북권은 은평구와 같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며, 고양시의 경계로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교육 및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9> 서북권 갈등유형 현황

서남권은 노동갈등이 60%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노동갈등의 약 2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남권은 공장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동갈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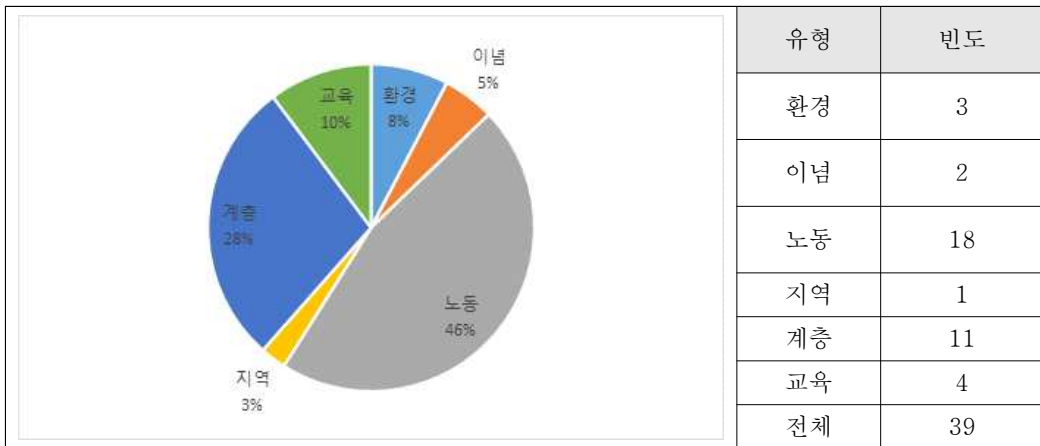
다음으로 계층갈등이 12%, 지역, 계층, 환경이 모두 8%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20> 서남권 갈등유형 현황

도심권의 경우 노동갈등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의 노동갈등의 약 2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심권은 상업지역으로 유사하게 노동갈등이 높게 발생하는 서남권의 지역과 연계해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층갈등이 28%의 비율을 보였으며, 교육10%, 환경 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도심권 갈등유형 현황

## V. 결 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갈등발생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의 강도가 단순하게 발생의 빈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지속일 수 및 기타 갈등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의 갈등지속일 수는 약 450일 정도로 전국적인 기간과 비교해보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낮은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지속일수가 연도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갈등환경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시계열적인 접근에서는 월별갈등발생과 종결은 전국적인 양상과 유사하다. 갈등발생이 3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집중화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서울은 노동갈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갈등은 도심권과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노동갈등의 전략적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동북권의 경우 다수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교육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갈등의 성격상 거시적인 정책이 영향을 주는 문제로 해당지역의 교육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북권은 교육과 환경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갈등의 경우도 동북권의 접근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서북권자체가 갈등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된 비율로 교육과 환경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갈등도 모든 권역에서 일정 빈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의 경우 높은 지가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층갈등 다시말해 빈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점은 강남에 남아있는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초점을 두어 갈등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연구원.
- 한영주. (2007). 「서울시 갈등사례실태 분석과 갈등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
- 서울특별시청 서울연구데이터 서비스 홈페이지. (<http://data.si.re.kr/seoul-and-world-cities>).

접수일(2020년 01월 06일)  
수정일(2020년 03월 24일)  
게재확정일(2020년 03월 31일)

## &lt;국문초록&gt;

## 서울시 권역별 공공갈등 구조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갈등발생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의 강도가 단순하게 발생의 빈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지속일 수 및 기타 갈등환경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의 갈등지속일수는 약 450일 정도로 전국적인 기간과 비교해보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낮은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지속일수가 연도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갈등환경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갈등, 갈등관리, 서울, 기간, 빈도

---

김강민(金剛民):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논문: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관한 연구)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로는 공공갈등, 정책평가, 공공갈등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원자력 관련 NPO의 기능과 역할: 갈등, 소통 그리고 정책마케팅(2019)”, “The Role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18)”, “갈등관리와 협상(2018)” 등이 있다(morning\_call@hanmail.net/kgm0432@dankook.ac.kr).